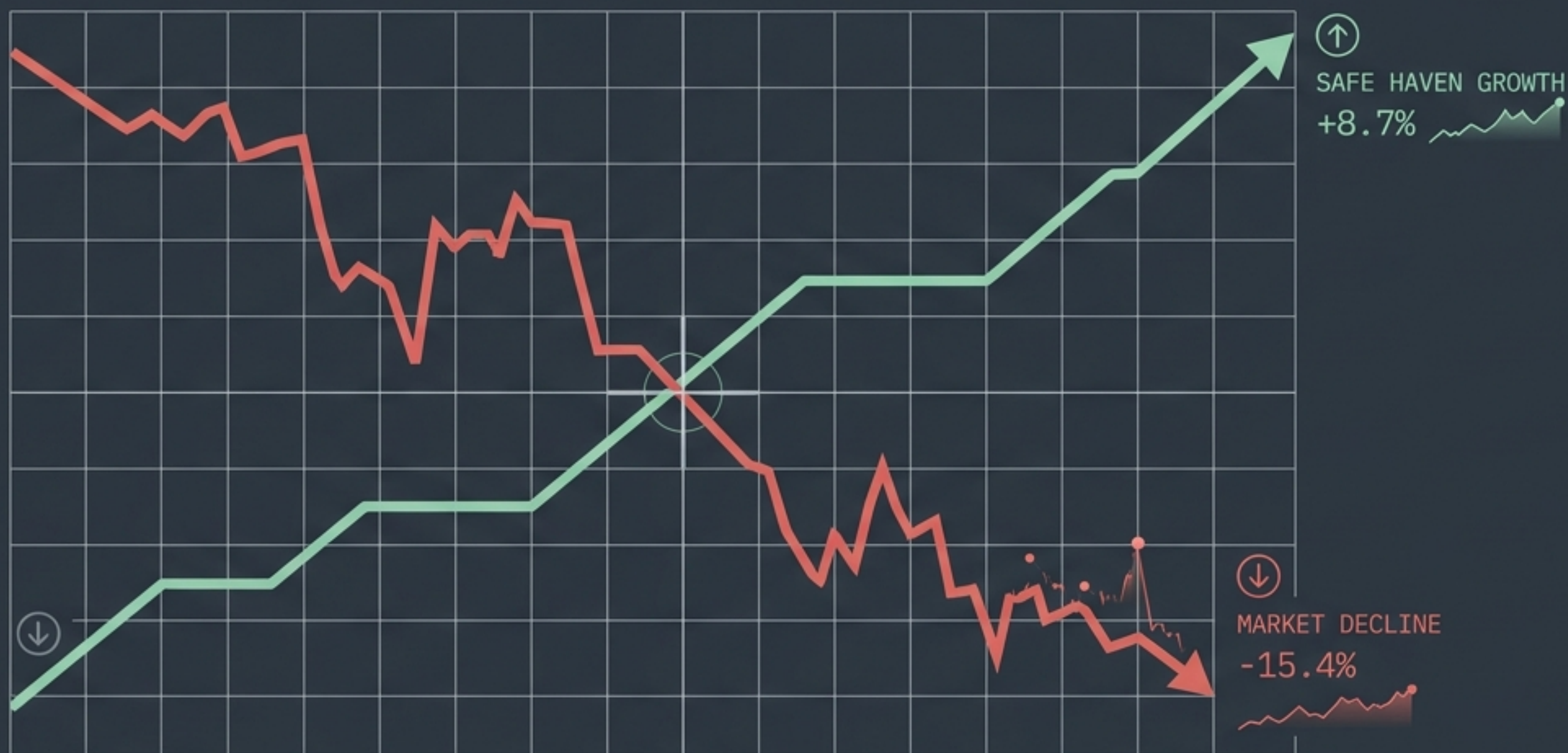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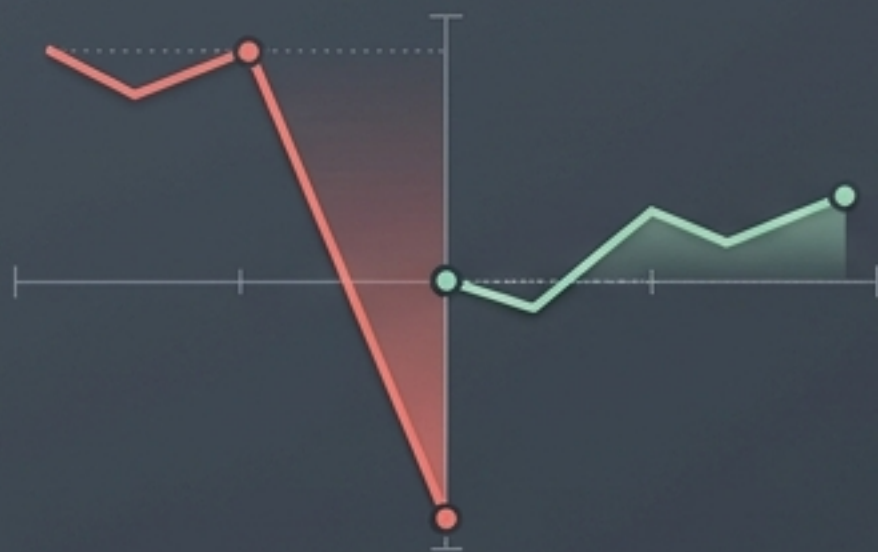


글로벌 시황 브리핑: 균열과 양극화의 장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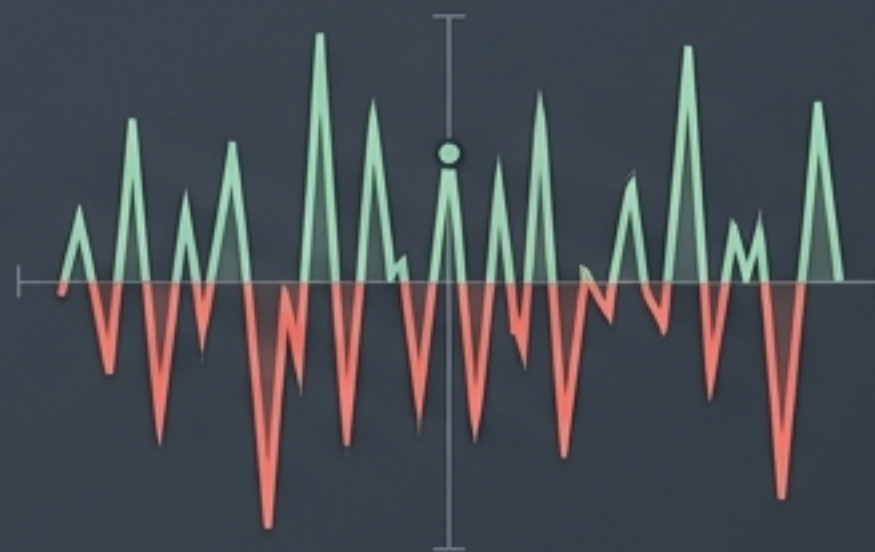
코스피 블랙먼데이와 글로벌 매크로 재편 (2026. 08.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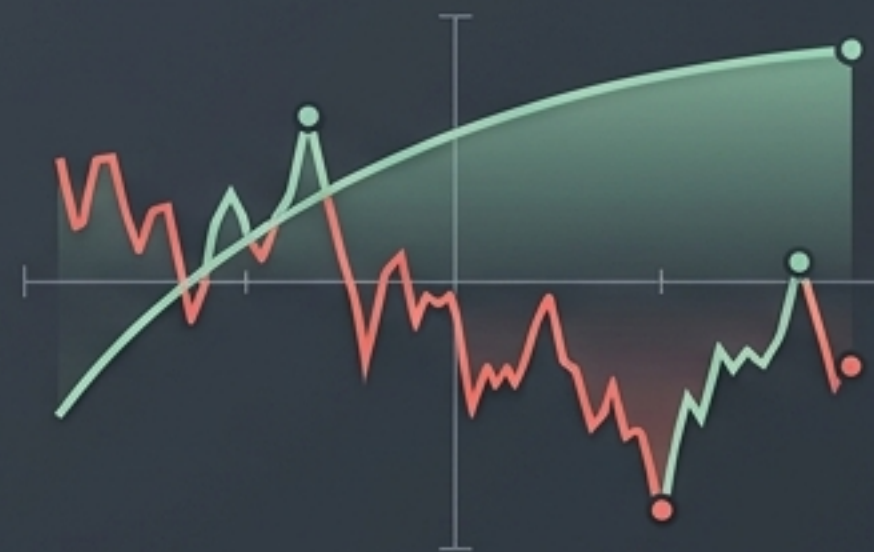
국내: 극단적 디커플링

- 코스피 -5.12% 폭락 vs 코스닥 +2.44% 반등.
- 반도체 대장주 투매 현상과 제약/바이오 방어주로의 자금 대이동 발생.



해외: 변동성의 역풍

- 美 나스닥은 기술주(아마존 등) 중심으로 1.00% 반등 성공.
- 그러나 3배 레버리지 ETF 급락으로 국내 투자자 50조 원 자산 증발 타격.



매크로: 안전자산과 지정학

- 미 국채금리 10년물 4.70%로 5bp 상승.
- 원/달러 환율 하락(원화 강세) 및 트럼프 이란 공습 보류 발언에 따른 유가 롤러코스터.

KOSPI: 투심 위축의 진원지

6,257.45 ▼ -5.12%
(-338.00pt)

← 외국인/기관 매도

수급: 외국인 -389.6만주, 기관 -504.0만주 순매도.
특징: 반도체 주식 차익실현 및 레버리지 포지션
정리 우려.

KOSDAQ: 틈새 시장의 반등

737.35 ▲ +2.44%
(+17.59pt)

→ 개인 매수

수급: 개인 865.8만주 순매수.
특징: 제약·바이오 섹터 강세가 지수 상승 견인.

업종별 승자와 패자: 방어주로의 도피

증권 +4.75% (증시 활황에 따른 순이익 압도)	섬유의복 +4.16%	의약품 +2.56% (코스닥 제약지수 상승세 유지)		
유통업 -4.64%	화학 -1.14%	음식료품 -1.08%		
	전기전자 (반도체 포함) -0.33% (시총 비중 고려 시 지수 하락의 핵심 주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진단: 반도체 투매 현상

반도체 쇼크

삼성전자

239,500원

▼ -8.76%

시총: 1400.2조

SK하이닉스

1,567,000원

▼ -8.79%

시총: 1144.7조

Note: 삼전닉스 동반 -8% 급락이 코스피 -5% 폭락의 절대적 원인.

배터리 & 바이오 동반 약세

1

LG에너지솔루션

▼ -3.66%

2

LG화학

▼ -4.26%

3

삼성바이오로직스

▼ -4.18%

유일한 선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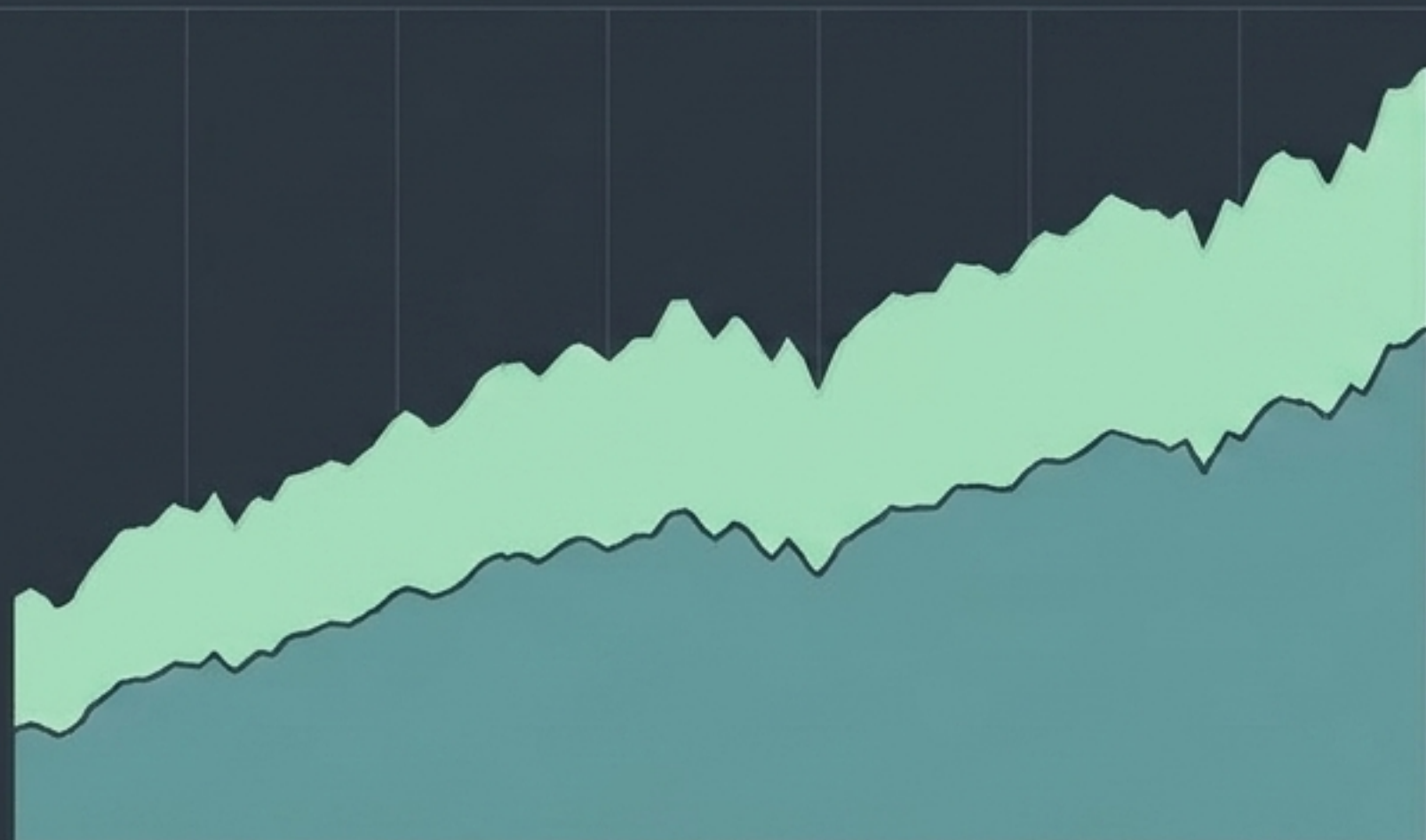
현대차

393,000원

▲ +1.29%

미국 증시: 기술주의 귀환과 내재된 함정

DOW JONES: 52,208.10 (▲+2.64%) | NASDAQ: 25,373.85 (▲+1.00%) | S&P 500: 7,489.72 (-



시장 동인 (Market Drivers):

- 아마존 등 주요 기술주 주가 급등이 나스닥 상승 견인.
- AI 및 양자 컴퓨팅 (디 웨이브 퀀텀 등) 투자 심리 개선.



Alert Box

잠재 리스크 (Underlying Risks)

- 스페이스X 첫 실적 악화 우려
(201달러 → 108달러 밸류에이션
(201달러 → 108달러 밸류에이션 리스크).
- 미국 세제개편안 발표 임박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구조적 리스크: 레버리지의 역풍



**미국 증시
극심한 변동성**

미국 지수는 상승했으나,
장중 극심한 롤러코스터
장세가 발생함.



**3배 레버리지
ETF 가치 훼손**

방향성 레버리지 상품(속슬
등)의 구조적 가치 훼손으
로 반토막 발생.



**서학개미
50조 원 증발**

국내 투자자의 실탄 부족 및
의욕 상실 야기. KOSPI 시
장 방어 수급 전면 고갈.

FICC 거시경제 활력징후

금리 - Yields



미 국채 10Y: 4.70% (▲ +5bp)

FOMC 매파 기조 유지로 상승 압력. 상단이 막힌 흐름.

외환 - FX



달러 인덱스: 0.5 (▼ -0.32) |
원/달러: 1,442.09원 (▼ -5.30원)

유로화 강세에 따른 달러 약세 및
원화 강세 턴어라운드.

크립토 - Crypto



비트코인 (BTC): \$103,000
(▲ +\$1,240)

ETF 순유입 지속 및 SEC의 나스
닥 비트코인 옵션 승인 재검토.

유로화 - EUR



EUR/USD: 1.1790
(▲ +0.0031)

ECB 금리 경로 재평가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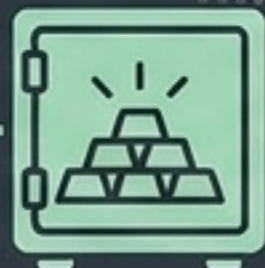
원자재와 지정학: 중동 발 극심한 롤러코스터

국제 금 가격 (XAU)

\$103,000 (▲ +\$18)



-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국제 금값 지속 상승.
- 단, 국내 금 시세는 '원화 강세(원러)' 효과가 상쇄 작용하며 상대적 약세 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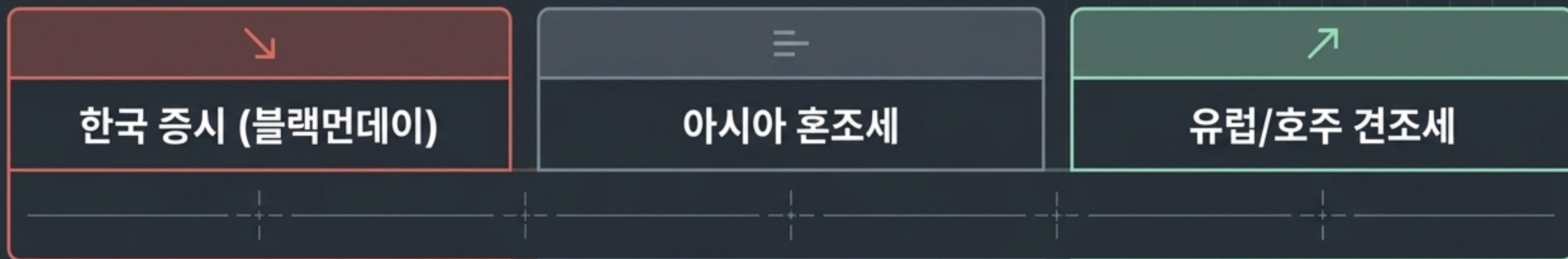
국제유가 (WTI)

\$79.80 (▲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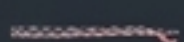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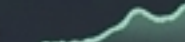
- 트럼프의 '대이란 공습 보류' 발언으로 장중 4~6%대 급락 발생.
- 이후 OPEC 감산 연장 기대감과 맞물려 급반등하며 극심한 변동성 노출. 원유 도입선 다변화 과제 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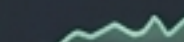
글로벌 증시 동향: 나홀로 추락한 한국 증시



한국 KOSPI: -5.12%



일본 닛케이: -0.02% | 
중국 상하이: +0.45% | 선전: +0.62% 

유럽 STOXX 50: +0.62% | 
호주 ASX 200: +0.52% | 

AI주 급락과 차익실현 매물 압력으로 유독 심각한 타격. 글로벌 증시 대비 극단적 하락.

일본은 관망세 유지. 중국 본토 증시는 아시아 내 유일한 상승 모멘텀 유지.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기대감 속 방산주 강세 및 자원주 중심의 상승.

진단: 왜 한국 증시만 무너졌는가?

한국 증시의 급락은 단일 요인이 아닌 3중고(Triple Threat)의 결합입니다.

Sector Risk

1.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

글로벌 AI 거품론('젠슨 황 개입 거품' 지적)이 한국 증시 기둥인 삼성/SK 대형주를 직격.

Macro Risk

2. 매크로 유동성 긴장

미·일 통화 공동 개입 및 트럼프 엔화 방어 가세로 인한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공포감이 유동성 위협.

Systemic Risk

3. 파생상품 역풍

미국 콜리코스터 장세로 인한 3배 레버리지 ETF 손실이 개인투자자 자금을 고갈시켜, 매수 주체 소멸.

KOSPI
-5.12% 폭락
(Black Monday)

핵심 관전 포인트 및 대응 전략

01

[국내] 대형주 관망 및 틈새 트레이딩

- ↳ 외인/기관의 매도세가 진정될 때까지 **반도체 대형주(KOSPI)** 저가 매수는 유보.
- ↳ 개인 수급과 모멘텀이 살아있는 **코스닥(KOSDAQ)** 제약/바이오 및 내수 방어주 중심의 단기 트레이딩 전략 유효.

02

[미국] 레버리지 지양 및 본질 가치 집중

- ↳ 변동성 장세에서 방향성 레버리지(**3배수 등**) 투자는 **계좌 융해를 초래**하므로 **극도 지양**.
- ↳ 실체가 확인되는 **대표 기술주(아마존 등)** 및 시장 대표지수 **ETF**로의 자금 이동 권장.

03

[매크로] 환율 변곡점 활용

- ↳ 달러 약세 및 **원화 강세(원/달러 5원 하락)** 국면 진입. 환율 하락을 활용한 달러화 자산 **분할 매수** 기회 탐색.
- ↳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급등락 리스크** 헤지 포지션 구축 필수.